

# 최첨단 사양 탑재 2021쏘울·쏘울EV 나왔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쏘울이 첨단 편의 사양을 기본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 2021년형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

기아차는 첨단 편의사양을 기본화하고 상품성을 최적화한 '2021 쏘울'과 '2021 쏘울EV'를 출시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쏘울은 스포티지와 셸토스, 봉고트럭과 함께 기아차 광주공장을 대표하는 차종 중 하나로 꼽힌다.

1세대 신차 쏘울은 지난 2008년 9월 기아차 광주공장 에서 출시돼 2013년 10월 2세대 올 뉴 쏘울이 양산됐 다.

이후 2014년 4월부터 전기차 쏘울EV도 생산되고 있 으며, 2019년 1월 3세대 쏘울인 쏘울 부스터(쏘울 부스 터EV 포함)가 출시돼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광주에서 태어난 쏘울은 2008년 9월 출시 이후 올 2월 까지 EV 모델을 포함해 누적 생산량 187만2548대를 기록 중이다. 북미시장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베스트셀링카이자 기아차 광주공장 수출의 첨병 역 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번에 기아차는 2021 쏘울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차 로 이탈 방지 보조' (LKA, Lane Keeping Assist), '운 전자 주의 경고' (DAW, Driver Attention Warning ), '하이빔 보조' (HBA, High Beam Assist) 등 첨단 지능형 주행 안전 기술을 기본적으로 적용해 운전 편의 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또 원격 시동 스마트키를 새롭게 전트림 기본 적용하 는 등 첨단 기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소형 SUV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여기에 기아차는 2021 쏘울 EV를 출시하면서 전기차 구매 고객의 운영 성향을 분석해 트림별로 최적화된 배 터리를 적용했다.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복합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50 km인 도심형 배터리를 장착해 경제성을 중시하는 고객의 수요에 대응했다. 노블레스 트림에는 복합 1회 충전 주 행거리가 386km인 기본형 배터리를 적용해 장거리 운전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외 2021 쏘울과 쏘울 EV에는 ▲후석 승객 알림 ▲ 공기청정 모드 ▲동승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등 다양 한 편의사양을 적용돼 상품성 역시 강화했다.

**2021 쏘울**  
기아차 광주공장 대표 차종 중 하나  
EV 모델 포함 생산량 187만2548대



**2021 쏘울 EV**  
트림별 배터리 용량 차등화  
노블레스 주행거리 386km

2021 쏘울의 가격은 트림 별로 개별소비세 1.5% 기준 으로 ▲프레스티지 1910만원 ▲노블레스 2101만원 ▲ 노블레스 스페셜 2293만원이다.

2021 쏘울 EV의 가격은 ▲프레스티지 4187만원 ▲ 노블레스 4834 만원이다. 서울시 기준 전기차 구매보조 금을 적용받으면 ▲프레스티지 2993만원 ▲노블레스 3564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각 지자체별로 보조금 상이 해 가격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2021 쏘울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안 전, 첨단 편의사양을 기본화한 가솔린 모델과 실제 사용 고객에 최적화된 상품성을 갖춘 전기차 모델로 고객 만 족도가 높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뛰어난 상품성을 갖춘 제품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다가가 겠 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현대차 7세대 '올 뉴 아반떼' 돌아왔다

전 트림 차로유지 보조 등 적용  
내일부터 사전 계약

서른 살을 넘긴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세단 아반떼가 모든 면에서 변화를 한 채 돌아왔다. 7세대 올 뉴 아반떼는 5년 만에 선보이는 완전변경 모델이다.

현대차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 우드에서 '올 뉴 아반떼'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월드 프리미어 이벤트를 열고, 다음달 국내 출시에 앞서 주요 사양을 공개했다.

23일 현대차에 따르면 1990년 1세대 출시 이후 30년에 걸쳐 꾸준한 인기를 이 어온 베스트셀링카 아반떼는 ▲미래를 담 아낸 파격적 디자인 ▲3세대 신규 플랫폼 으로 빛어낸 탄탄한 기본기 ▲차고를 뛰 어넘는 최첨단 편의사양 ▲효율적이면서 도 역동적인 주행성능이 완벽하게 조화된 7세대 모델 '올 뉴 아반떼'로 재탄생했다. 다음달 국내 출시를 앞둔 '올 뉴 아반 떄'는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MPi (최대 출력 123ps, 최대 토크 15.7 kgf·m) ▲1.6 LPi(최대 출력 120ps, 최대 토크 15.5 kgf·m) 등 총 2개의 엔진 라인업

으로 운영되며, 3세대 신규 플랫폼이 최 초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충돌 안전성, 승차감, 소음 진동, 동력, 연비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3세대 신규 통합 플랫폼이 최초 적용된 '올 뉴 아반 떄'는 ▲스포티한 디자인에 걸맞은 낮아 진 전고, 시트 포지션 ▲등급 최고 수준의 휠 베이스, 개선된 레그 룸, 헤드 룸, 숄더 룸으로 완성된 우수한 공간성이 돋보인 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올 뉴 아반떼' 모든 트림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운전 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HBA, High Beam Assist)를 기본 적용했다.

짧은 감성을 갖춘 고객을 위한 최첨단 사양도 다양하게 적용됐다. 특히 10.25인 치 클러스터와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통합된 형태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중심의 인체공학적 구조와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사양으로 완성도 높은 몰입 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오는 25일부터 '올 뉴 아반 떄'의 사전계약을 실시 하고, 다양한 이 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초소형 소방차·청소차 나온다

국토부 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초소형 소방차·청 소차 등이 가능하도록 초소형 특수차 차 종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하고,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3 일 밝혔다.

먼저 기존 차종 분류 과정에서 일부 규 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 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2018년 6월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 신 설 이후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관 매되며, 작년 말 기준 트위치(르노삼성) 등 7개 업체의 9개 모델 5045대가 생산돼

국내에 1490대가 등록된 상태다.

정부는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 소 면적 기준이 일반 화물차와 동일한 2㎡ 이상으로 규정돼 제작 여건상 이를 준수하 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해 이를 현실에 맞게 1㎡로 완화하기로 했다.

삼륜형 이륜차의 경우 적재중량보다 자동 차 안전기준상의 적재중량보다 작아 적재 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 하게 적용해 60kg에서 100kg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슬립화되는 도시의 구조와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동차 분류체계상 초소형 승용 ·화물차만 가능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된 초소형 소방차나 쓰레기압축차, 이동세탁 차, 진공 청소차 등의 초소형 특수차 생산 이 곤란한 실정이다.

/연합뉴스

## 현대차그룹 '내일을 향합니다' 브랜드 캠페인 화제

그룹 역사 영상 3일만에 100만뷰 조회

현대자동차그룹이 공개한 그룹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영상이 3일만에 100만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23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국 공식 유튜 브 계정을 통해 '내일을 향합니다(Next Awaits)'라는 브랜드 캠페인 영상(국문)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약 2분 길이로 현대차그룹의 현재부터 과거 까지 역사를 조명하고 있다.

'내일을 향합니다'라는 영상의 제목과는 달리 영상 속 시간은 스마트 모빌리티로 채워진 미래가 아닌 과거를

향하고 있다.

영상에서는 현재를 기점으로 그룹의 성장 과정에 주목 하고 창업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역사적 순간들을 상 기하며 '진보하는 기업은 우연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힘 을 길러왔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영상은 지난해 9월 현대차 유럽권역본부가 기획 후 제작해 유럽에서 최초로 공개했으며 현지에서 꾸준한 조 회수를 기록함에 따라 지난해 말 글로벌 지역으로 공개 를 확대했다.

영상은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가 횡단보도 앞에 멈 추는 장면에서 시작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투싼, 티뷰

론, 스텔라 등 과거 차량의 모습을 차레대로 비추며 1974년 토리노 모터쇼에서 포니를 공개하는 장면으로 넘어간다.

이후 포니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면서 무역선이 건 조되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이 장면에서 내레이션은 "우 리는 전 세계에 직접 만든 차를 실어 나르기 위해 배를 건조했다"고 말하며 1960년대 한국 조선업의 시작과 현 대차그룹의 인연을 언급하기도 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단순히 신차를 노출해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기존 마케팅 방식에서 벗어나 유럽 인들에게 브랜드의 기원을 알리고 오늘날 현대차가 어떻 게 성장했는지와 브랜드 핵심가치인 '인류를 위한 진보 (Progress for Humanity)'를 어떻게 구현해 왔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